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6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운동부 후배 “성폭력당했다”...가면 들춰진 ‘전국대회 3관왕’ 체육계 유망주

경향신문 강정의 기자

02

체육계 폭력 근절... 체육회 선수위,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03

"그동안 고마웠어요" 삽으로 맞으며 운동한 중학생, 폭행 백화점 K스포츠

프레시안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04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평가 위해 실적 데이터 조작 들통

뉴시스 박지혁 기자

05

한국·태국 체육 협력 방안 논의...최휘영 장관, 파타마 IOC 위원과 회동

뉴스핌 장환수 기자

운동부 후배 “성폭력당했다”…가면 들춰진 ‘전국대회 3관왕’ 체육계 유망주

경향신문 강정의 기자

2025.09.26 07:11

일러스트=NEWS IMAGE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 선배가 후배를 상대로 성범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25일 대전 소재 A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전날 “지난 봄 3학년 학교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B군은 올해 봄 한 숙박업소에서 2학년 후배 C군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옆드리라고 강요한 뒤 C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기고 도구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도 촬영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유포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B군 등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발생했다. 당시 B군 외에도 몇몇 학생들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의혹을 받는 B군은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지역 체육계 유망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C군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점점 심해져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C군 측은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고 이후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의 보호·감독 책임 위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01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학생들 역시 학폭의 피해자라고 판단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군 역시 “우리도 피해자”라며 C군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B군의 부모는 “당시 C군도 우리 아이의 중요부위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지만,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고 웃어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C군 측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향후 이뤄질 교육당국 측의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02

체육계 폭력 근절… 체육회 선수위,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2025.09.27 08:53:42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가 최근 체육계에 불거진 폭력 문제와 품위 손상 사례 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를 근절하고 국가대표 품위 유지 행동을 촉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체육회 선수위원회는 24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1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종목에서 발생한 선수 간 폭력 및 품위 손상 사례로 체육계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선수 대상 폭력 근절과 국가대표 품위 행동 촉구 방안을 논의했다.

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성폭력·부당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피해 선수 보호와 재발 방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필요한 정치적·사회적 발언을 삼가고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과 품위 유지에 철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김국영 선수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선수들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반영하고,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선수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 조작 방지를 위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PMC 앰버서더 추천 논의가 진행됐고, 꿈나무 선수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스포츠과학교실을 다각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협조 방안도 검토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삼으로 맞으며 운동한 중학생, 폭행 백화점 K스포츠

프레스리안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5.09.28. 10:33

사진=연합뉴스

모두 중학생들 이야기다. 올해 1월 철인3종 중학생 대표단 합숙 훈련 과정에서 3학년 남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여학생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남학생 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가해자는 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까지 했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또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 영상을 다른 선수들과 돌려보기까지 했다.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삼으로 폭행했다. 삼 날로 내리쳐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봉합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처였다. 감독은 부모에게 세면대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두 달간 이를 은폐했다. 피해 학생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그 학생은 7월 가족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문자를 남기고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아버지에게 발견돼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1학년 때엔 감독에게 삼과 발길질로 폭행당했다. 2학년 때는 새로 부임한 감독에게 무릎 꿇린 채 삼과 몽둥이로 구타당했다. 두 감독의 공통점? 아이를 삼으로 팼다는 점. 그렇다. 이들은 형제였다. 서른아홉, 서른일곱, 친형제였다.

대한민국 스포츠, 아이들 가르칠 자격 있나?

지난 3일 전국 복싱대회 중등부 경기. 1라운드에 다운 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선수는 2라운드가 시작됐음에도 가드조차 못 올리는 비정상 상태였다.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 주춤했다. 그러나 코치는 이를 무시했고 심판은 경기를 강행했다. 곧 쓰러졌다. 경기장엔 119나 병원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있었다. 운전자는 사이렌 켜는 방법도 몰랐다. 신호를 다 지켜가며 운전했고 병원도 찾지 못해 도로를 헤맸다. 병원까지 30분이 걸렸다. 뇌출혈이었다. 의료진은 "너무 늦었다"고 했다. 1주일 지나도록 의식불명. 분노한 아버지는 8일 대회 진행 중 링에 올라 자해를 시도했다.



안타깝지만 사건, 사고는 사회 어디에서나 생긴다. 문제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자세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철인 3종 성폭행 사건이 발생 후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0대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나왔다. 참으로 '가해자스러운' 망언이다. 특히 철인3종은 5년 전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 선수들로부터의 폭행, 괴롭힘 때문에 생을 마감해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바로 그 종목이다.

그럼에도 협회는 '유포가 우려된다'며 불법촬영된 영상을 삭제해 결정적 증거를 없애버렸다. 증거인멸이다. 피해 학생 어머니에 따르면 협회는 "둘이서 저질러 놓고 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는 식이었고 범죄자 취급하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너 왜 그 방에 갔냐"면서. 결국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 성폭행은 '합의된 성관계'가 됐다. 또 남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피해 여중생에게 출전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삽으로 학생을 폭행한 씨름부의 경우 아들의 극단적 선택 직전 이를 발견한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지훈련 지원금을 위한 최소 인원 확보를 위해 피해 학생에게 전지훈련 참가를 강요했다. 참으로 담대하지 않은가! 전지훈련을 거부하자 학생부장은 뻔뻔스럽게도 '훈련 기간 집 밖으로 다니지 않게 하라, 지원금 반환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외출 금지를 요구한다. 이쯤 되면 미친 거다. 또 자살 시도 이틀 뒤 Wee센터에 신고하자 학생부장은 왜 신고했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는 물론 심리 상담조차 거부한다고 기사는 전한다.

한국 스포츠의 튼튼한 기반 '가해자 중심주의'

그런데 씨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 때 자신을 지도한 세 명의 감독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징계를 받은 것은 중2 때 폭행한 '동생 감독' 한 명뿐이라는 것이다. 한국 스포츠에서 반복되는 확실한 패턴 중 하나는 바로 '가해자 중심주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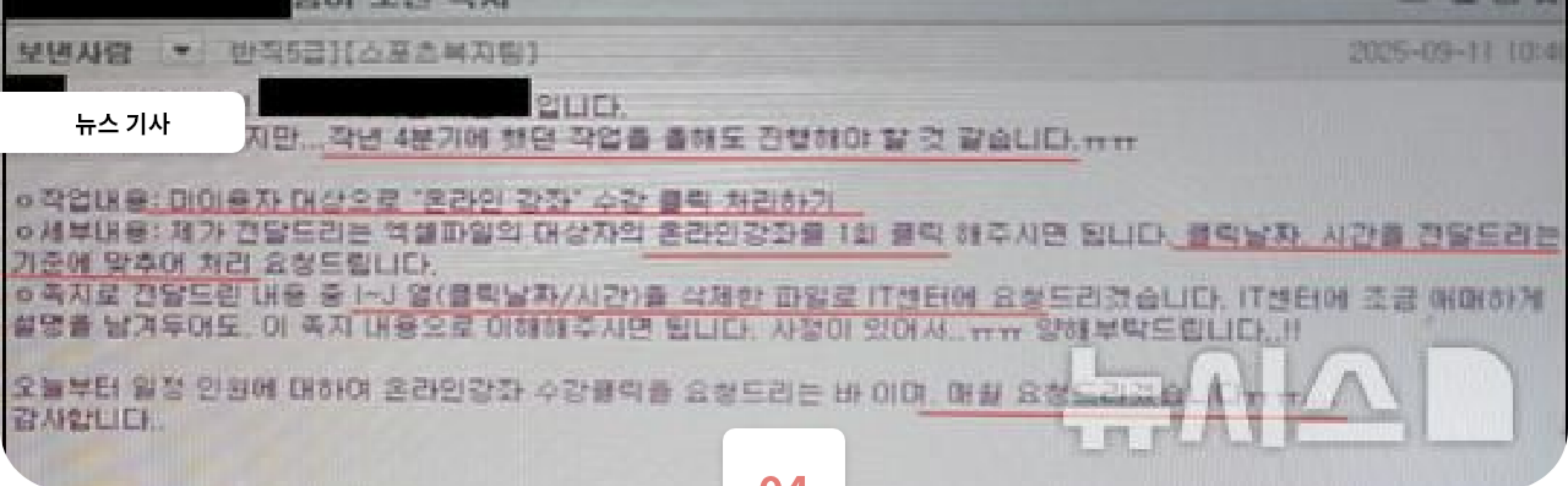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대한체육회는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웃음이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게 체육계의 다짐이다. 그동안 바뀐 게 있나? 사과, 재발 방지, 강력한 징계는 대한체육회 등 우리 체육계가 입에 달고 다니는 못된 버릇 중 하나다. 지난 30여 년 반복적으로 접한 체육계의 폭행 사례들은 매우 창의적이면서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거의 폭행의 백화점이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반복되는 아동 폭력의 역사

작년 기고한 칼럼 <어른도 못 견딜 고문으로 네살 아이는 뇌사, 아동학대 K-스포츠인가?>에서 손축구아카데미 등 유소년 축구와 태권도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폭행 사례들을 소개한 바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피해자들만 골라서 소개했다. 가장 어린 아이가 네 살. 태권도 관장이 돌돌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집어넣어 20분간 방치했다. 아이가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애타게 외쳤지만 외면했다. 결국 사망했다. 그건 고문이었다.

분을 삭이던 중 또다른 기사를 접한다. 지난 21일 인천의 태권도학원 사범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구속됐다.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우리 체육계 아동 폭력의 역사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씀 없이 반복된다. 외국에선 스포츠가 아이들의 천국인데 이 땅에선 아이들의 지옥이다.



04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평가 위해 실적 데이터 조작 들통

뉴스시스 박지혁 기자

2025.09.27 08:53:42

사진=이기현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사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도급업체를 통해 경영평가 대비 실적 데이터 조작과 경영평가용 비밀 메뉴 개발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단 스포츠복지팀 소속 A씨는 공단 상주 도급업체 직원 B씨에게 내부 메신저 쪽지를 보내 '미이용자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 클릭 처리하기' 작업을 요청했다.

A씨는 특정 대상자들의 온라인 강좌를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1회 클릭'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클릭 일자와 시간을 삭제한 엑셀 파일을 IT 센터에 다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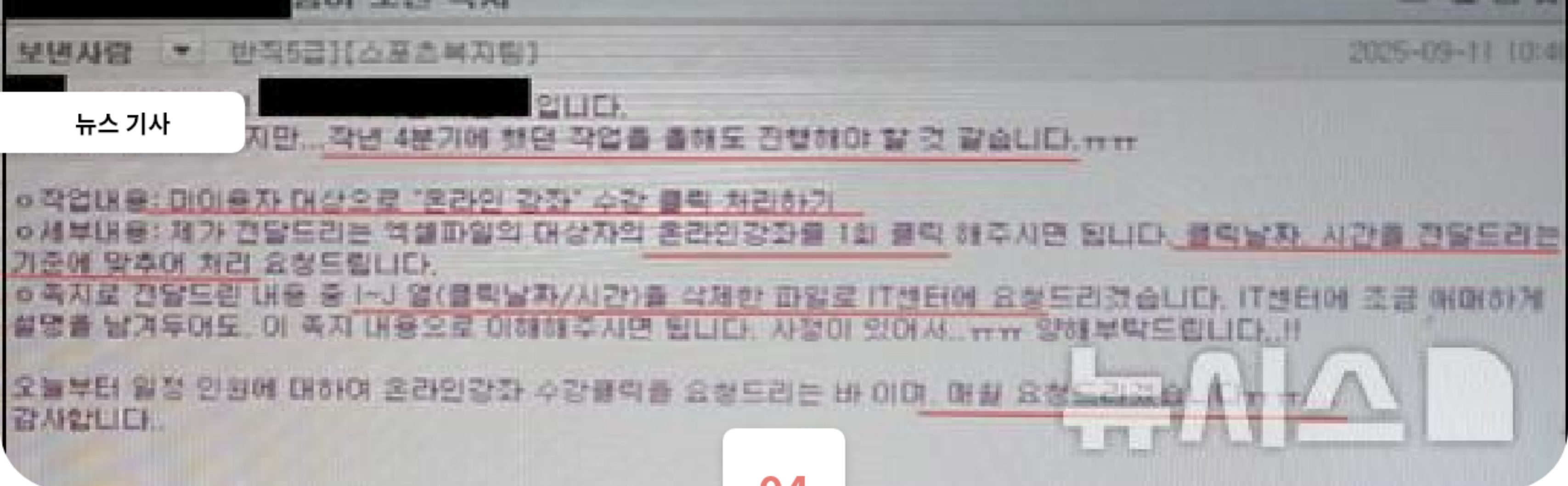
또 "오늘부터 일정 인원에게 대해 온라인강좌 수강클릭을 요청하겠다"며 "매월 요청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은 회원이 특정 일자와 특정 시간(17~21시)에 수강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남기도록 한 것이다.

A씨가 조작을 요구한 사업은 공단이 올해 5월부터 추진한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이용자 및 성실 이용자 대상 수강 이벤트였다.

이 가운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아 '자격정지' 상태가 된 대상자들의 실적이 저조하자 이들이 성실하게 수강한 것처럼 보이도록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이다.

특히 A씨는 "작년 4분기에 했던 작업을 올해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난해에도 유사한 조작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공단의 스포츠복지증진사업은 배점이 21점이다. 이 중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실적은 가중치 2점을 차지한다



04

데이터 조작을 위한 '비밀 메뉴' 개발 지시도 있었다.

지난해 7월 스포츠이용권팀 C씨는 도급업체 직원 D씨에게 "기존 제출한 경영평가 실사용 백데이터와 관리시스템 상 수치가 다르므로 경영평가 실사 대응 전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용권실적통계'와 혼동되지 않도록 '이용권실적동계' 등 오탈자를 활용한 메뉴를 새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C씨는 열람 범위를 공단 내부로만 제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장애인체육회 등 실제 집행 주체는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사실상 경영평가용으로 조정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C씨는 또 "상세내역 반영이 어렵다면 총계값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 가능하다"고 언급, 원데이터(회원탈퇴·정보변경 등)와 무관하게 경영평가 점수를 유리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기현 의원은 "경영평가는 정부 예산, 기관 평가, 인사, 성과급과 직결된다. 데이터를 임의로 손질하는 행위는 평가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같은 조작 지시가 언제부터, 어느 선에서부터 시작해 도급업체에까지 내려간 것인지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태국 체육 협력 방안 논의…최휘영 장관, 파타마 IOC 위원과 회동

뉴스핌 장환수 기자

2025.09.26. 13:56

사진=문체부

025 수원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찾은 태국의 쿠닝 파타마 리스왓트라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한국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파타마 위원을 접견하고 체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IOC 선수위원 출신인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도 함께했다.

2017년 태국 여성 최초 IOC 위원으로 선임된 파타마 위원은 현재 태국의 유일한 IOC 위원이자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이다.

최 장관은 "IOC 위원과 첫 만남을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를 본격화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올림픽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정신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 스포츠 발전에 헌신해 '올림픽 퀸'으로 불리는 파타마 위원의 행보는 스포츠와 문화 융합 정책을 추진하는 문체부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회장 역시 "IOC와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파타마 위원께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과 태국 모두 배드민턴 강국인 만큼 종목 발전과 국제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타마 위원은 "한국은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치른 세계적 스포츠 강국"이라며 "배드민턴을 비롯해 여러 종목에서 협력이 이어진다면 국제 스포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1993년 체육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30년 넘게 협력을 이어왔다. 볼링, 스키, 자전거, 육상 등 다양한 종목에서 합동훈련과 지도자 교류가 진행됐다. 문체부의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청소년이 한국에서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도 했다. 지난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선 드림 프로그램 출신 태국 선수가 사상 첫 동계 종목 올림픽 메달을 따내 의미를 더했다.

문체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함께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를 넘어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